
5분 자유 발언

- 낙상 사고 예방의 첫걸음,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촉구 -



고성군의회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이 맞이한

고령화 현실을 직시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내 안전손잡이 설치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총인구 47,51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13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8%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가속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과
건강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추락 및 낙상 사고는
무려 28.4% 증가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서도
최근 4년 간
고령자 안전사고 중 62.7%가
낙상 사고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일부 경로당에는
화장실이나 현관처럼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내 화장실은
협소한 구조와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늘 불안과
불편 속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고령층은 골밀도가 낮고
신체적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낙상 사고로 인해

둔부 골절이나 뇌진탕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인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손잡이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을 선별하고,
위험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안전손잡이 설치에 국한되지 않고,
낙상 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는
센서 조명을 도입해
시야 확보를 돕는 등
낙상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 호출 시스템,
경사로 정비, 화장실 문턱 제거와 같은
추가적인 안전 장치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로당을 보다 촘촘하고
섬세한 배려가 깃든 공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개선이
일회성 예산 집행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경로당 안전 개선 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매년 점검과 보완을 반복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한 편의의 제공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고령사회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자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모든 변화는 때로
작은 손잡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손잡이는

단순한 부착물이 아닌,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손길이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생명과 존엄을 향한
따듯한 배려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